[ 12월 6일 아침 ]

“다들 모였지? 그럼 시작하자.”

등교 시간보다 훨씬 이른 아침. 학생회 모두가 졸린 표정으로 학생회실에 모여 은혜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학생회 회의라니. 고등학교 2학년한테는 너무 빡빡한 일정이다. 그래도

채 “우우…. 졸려 죽겠다.”

도 “선생님도….”

저 두 명보다는 나은 편이네.

수험으로 다져진 3학년이라 그런가. 혼자 멀쩡한 은혜 선배가 이동형 아크릴 칠판 위에 크게 글씨를 적었다.

[ 학생회 회의 ]

“도래솔 선생님. 이번이 몇 번째 학생회 회의였죠?”

“으응!? 몇 번째 회의인지는 안 세고 있었는데.”

한 “새로 사람도 들어왔으니까 1회로 하면 어때요?”

도 “그, 그러면 되겠다! 1회 좋다, 1회!”

“으흠. 네. 새로운 마음으로 1회라 하죠.”

[ 학생회 회의 제1회 ]

“먼저 학생회 신입인 후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회의의 화살은 시작부터 나를 노리고 날아왔다.

“소원이한테 들었어. 후배의 무기는 반지라고 했지?”

“네. 이거에요.”

감춰뒀던 검은색 반지를 모두 앞에 보여줬다.

“능력은 물건을 만드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

“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능력이에요.”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어디까지 가능해?”

채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금덩이도 만들어져요? 새 핸드폰도?”

“재료를 보고 떠오르는 걸 만드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최신형 핸드폰은 겉모습이라면 만들 수 있으려나. 내부는 텅텅 비어있겠지만.

한 “그럼 나한테 받은 파편에서 떠올랐던 건 뭐가 있어?”

“어…. 머리핀이랑 물약, 부적.”

“그리고 만능열쇠. 이 정도였던 것 같아.”

한 “만능열쇠?”

“잠깐만 그거면...”

“은혜 선배. 도래솔 선생님이 찾아낸 장소 있잖아요?”

고 “후후. 소원이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후배의 능력으로 만든 열쇠라면 열 수도 있으려나.”

채 “아! 거기요!”

거기? 거기가 어딘데?

“폐병원을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로 찾아낸 건데.”

도래솔 선생님은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냈다.

“에헴. 선생님은 이걸로 원하는 장소를 볼 수 있거든. 미지가 모여있는 장소를 찾다가 나온 곳이야.”

한 “근데 애매하게 보이긴 해. 폐병원 건물만 보여서 한참 찾아다녔거든.”

“그, 그래도 옛날에는 엄청났다!? 선생님 손거울도 미지 쓰러뜨리고 그랬어! 레이저도 나가고!”

선생님이 끙끙댔지만, 손거울은 희미하게 반짝거리다 꺼졌다.

“히잉…. 역시 지금은 안 되네.”

채 “그래서 래솔 선생님이 발견한 폐병원을 찾긴 했는데. 잠겨있어서 결국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지가 모여있는 곳이라며. 거길 왜 들어가려는 거야?”

한 “폐병원 안에 미지가 모여있으면 우리가 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

채 “매일 밤 미지 찾아다니는 것도 고생이거든요. 그놈들 은근히 안 보인다구요.”

고 “거기에다 더 많은 미지를 잡으면 더 빨리 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려면 폐병원 안을 확인해야 한다 이거네요.”

“후후. 그래. 후배가 나서줘야 하는 거지.”

한 “어때? 만들 수 있어?”

“저번에 건네줬던 파편들이 있다면 만들 수 있을 거야.”

한 “하아.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더 챙겨둘걸.”

“후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되는 거야.”

은혜 선배가 칠판에 ‘이번 주의 목표 : 파편’이라고 적어넣었다.

“이번 주 동안 우리는 조각을 모으도록 할게. 후배는 그걸로 열쇠를 만드는 일에 주력해줄래?”

“네. 해볼게요.”

고 “좋아. 이번 주의 목표는 정해졌네.”

채 “선배는 열쇠 만들기. 저랑 소원 언니, 은혜 언니는 조각을 모아서 선배한테 가져다주는 거네요.”

도 “선생님은? 선생님은 뭐할까?”

고 “도래솔 선생님은…. 평소처럼 모두를 위해 응원해주세요.”

도 “으,응! 힘내자! 파이팅!”

한 “어? 그런데 있잖아.”

“이러면 너가 밤에 학생회에 올 필요가 있어?”

“응?”

“우리가 파편을 모아올 테니까, 넌 안전한 곳에서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

“네 무기가 전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지….”

“그럼 밤에는 네가 안전한 곳에 있는 편이 낫잖아?”

하나하나 맞는 말이지만 가시처럼 가슴을 파고든다.

야, 도움도 안 되는 놈은 빠져있어.

자격지심인지 한소원의 말은 그렇게 들렸다.

도 “아람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네?”

“선생님도 미지와 싸우지는 못해도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잖니.”

“그런데 소원이가 선생님 보고 빠져있으라고 말하면 어떻겠어?”

“저는 쟤를 생각해서 말한 건데….”

“그러면 친구 생각을 존중해줘야지. 물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걸?”

도래솔 선생님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가능하면 밤에도 같이 돕고 싶어요.”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혼자 빠져서 안전한 곳에 있는 것도 싫어요.”

“같은 학생회잖아요.”

한소원에게 들었던 얘기로 답하며 머쓱하게 웃었다.

“응. 알겠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대, 소원아.”

“.......그러고 싶으면.”

한소원은 우물쭈물하고는 툭 뱉듯이 대답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던가.”

채 “소원 언니는 미안하게 생각한대요, 선배.”

한 “아니거든!?”

도 “후후. 벌써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좋네.”

“그런데 있지. 어차피 후배 혼자 밤에 안전한 곳에 있을 순 없었어.”

“우리가 미지와 싸우는 이유는 미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잖아?”

은혜 선배가 나를 쳐다봤다.

“미지를 쓰러뜨려야 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약 후배가 안전한 곳에서 도구만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건 미지와 싸우는 게 아니겠네요.”

도 “그랬지. 중요한 게 빠졌었구나….”

한 “그러면 어떡해요?”

고 “일단은 후배와 함께 나가는 것까지만 시도해보자.”

“그리고 미지와 싸움이 시작되면 후배는 멀리서 우릴 도와주는 거야. 후배가 위험하면 우리가 지켜주고.”

“우선 이걸로도 미지를 쓰러뜨린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자. 며칠 경과를 보고 변화가 없으면 다음 방법을 생각해야지.”

“후배는 괜찮겠어? 여차하면 못 지켜줄 수도 있어서 위험해질지도 몰라.”

“괜찮아요. 해볼게요.”

조금 무섭지만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니 어렵지는 않다.

“다들 지켜준다고도 말했잖아요. 정 위험하면 도망가면 돼요.”

“후후. 듬직하네.”

“좋아. 그러면 후배를 어떻게 할지도 정했으니까.”

“이번 주 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 아크릴 칠판에 그린 듯한 튜토리얼 ]